

청계천을 도심 환경·역사·문화 재생의 軸으로

- 녹지 체계 확충·도시 구조 변경 등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시켜야 -



시대에 따라서 사회, 경제, 문화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하천의 의미와 가치도 변한다. 고대 중국과 이집트 문명은 황하, 나일 등의 하천변에서 생성되었다. 우리나라의 평양, 경주, 개성, 한성 등의 고도읍도 하천변에 위치하였다. 하천변의 비옥한 토지를 이용한 식량 생산 기반과 수자원의 이용은 도시 성장에 필수적이다. 반면에 빈번하게 찾아오는 홍수는 농경지와 도시를 범

람하여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종래의 하천 관리는 치수와 이수로 요약될 수 있었다. 즉 치수란 튼튼한 제방을 쌓아서 홍수 피해를 막는 것이고, 이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관개 및 생활 용수를 확보하고, 수운을 이용한 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하왕조(夏王朝)의 시조 우왕(禹王)이 황하의 홍수를 잘 다스린 공적으로 인하여 순(舜)이 죽은 뒤, 제후의 추대를 받아 천

5.8km의 청계천 물길은 서울 강북의 도심을 선진 외국 유수의 도시들과 비견되는 경쟁력과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친수·환경 보전의 새 출발

산업화 이전에는 생존의 측면에서 하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근래에는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현

환경 복원 건설의 개가, 청계천



대의 도시 하천 관리는 친수 기능과 생태계 보전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친수 기능은 도시 녹지의 일부로서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은 고상하고 세련된 도시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미국 텍사스주의 무디운 도시인 샌 안토니오시의 도시 하천변에는 고급 식당, 쇼펍, 문화 시설이 밀집되어 도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생태계 보전 기능은 야생 동물 서식지 및 생태 통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변에 숲과 습지를 유지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 야생 동물이 번식하고 진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거행된 청계천 복원 공사 준공식은 우리나라 도시 하천의 친수 기능과 환경 보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의 출발을 의미한다.

한강과 청계천의 옛 모습

한성에 도읍을 정한 조선조에서는 한강과 그 지천은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전국에서 생산된 쌀은 한강 하구를 경유하여 마포나루로 집결되고, 소금 및 조기 등의 해산물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여주, 충주 등의 나루터로 올라가고, 태백산맥에서 나는 훌륭한 목재는 도성의 궁궐 신축 및 보수용으로 읍

청계천 복원은 역사 문화 복원의 시발점 역할로서도 유효해야 한다.

겨져 왔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의 영월화력 발전소 건설 중에는 중량 3,000톤의 터반을 바지선을 이용하여 여름철 풍수기에 한강 하구에서 영월까지 운반하였다고 한다.

조선조 이성계가 한성을 도읍으로 정하기 이전의 청계천의 모습은 하천 지형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유추할 수 있다. 광화문, 무교동 구간의 청계천은 상류 하천의 특성을 구비하여 하천폭이 좁고, 하상에는 큰 바위, 호박돌, 자갈 사이에 왕모래가 부분적으로 퇴적하고, 홍수기에는 급류가 흘렀을 것이다. 하천변에는 달뿌리풀, 물억새, 갯버들, 오리나무 등이 자라고, 현재의 도심부 중에서 농경지와 취락으로 이용되지 않는 곳에는 지금의 비원의 식생과 유사하게 오리나무, 느릅나무, 갈참나무, 물박달나무 등의 습윤지성 활엽교목이 우점하였을 것이다. 반면 한강의 1차 지류인 중랑천에 흘러드는 청계천 하류 구간은 하상 경사가 완만하여 토사가 퇴적하고, 수변 높지는 논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북한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은 한성 도읍 주민의 식수, 빨래 등의 생활 용수로 이용되고, 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로서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청계천변에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튼튼한 석축을 쌓고, 수위를 관측하기 위한 수표를 설치하고, 광

통교, 오간수교 등과 같은 돌다리는 물론 다수의 쉼다리로도 건설하였을 것이다. 조선실록 등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토사 및 쓰레기 퇴적에 따른 홍수 소통 능력의 악화 및 여름에 악취와 전염병이 창궐할 정도로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청계천 준설 사업을 시행한 기록이 있다.

해방 이후 기능 상실

해방 이후의 혼란기에서 청계천 복개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청계천은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빈민은 홍수 위험이 상존하는 수변에 수상가옥 형태의 판자촌을 건설하여 오물과 쓰레기를 하천에 버렸다. 해방 직후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하여 복청 물장수가 등장하여 먹는 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청계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천은 극심하게 오염되었고, 악취 및 해충 발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동차 보급 증대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하천 복개도 많이 하였다. 복개된 청계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천을 폐지하고, 대신에 도로와 하수도로 관리하였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고가도로는 일조, 통풍, 시야를 차단하고, 도로상에서의 차량의 소음, 진동, 배기가스로 인하여 이 일대의 도시 환경은 도심에서 가장 불량한 상태이었다. 즉 청계천 일대는 불량한 도시 환경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가 도심에서 가장 저렴하여 소규모, 영세 상인이 밀집된 불량 재개발 지역으로 전락되었다.

도심 경쟁력 제고의 시발점

지난 2년 간 서울 시민은 물론 도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모든 국민의 기대 속에 진행된 서울의 청계천 복원 공사가 준공되었다. 연장 5.9km의 청계고가도로 및 하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폭 20~77m, 연장

5.8km의 도시 하천을 재생하게 되었다. 이 공사는 삭막하고 열악한 서울의 도심지에 맑은 물이 흐르고, 새와 물고기가 서식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서울의 강북도심을 강남은 물론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 비견되는 경쟁력과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국내 최초의 하천 복원 사업도 아니고,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문화재 보호, 장애인 통행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거론될 바 있다. 그러나 도시 하천의 복원, 환경 친화적인 도심 공간 조성, 도시 하천을 이용한 친수 공간의 조성 등이 시민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고, 중요한 과제를 증명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다른 도시 하천 복원 혹은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청계천 중심의 도시 녹지 확충 필요

첫째, 청계천을 축으로 하는 도시 녹지 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생태 통로로서의 청계천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 해상력 30m인 Landsat 위성 영상(2002년)을 분석한 결과 청계천에 인접한 녹지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황학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철거 공사가 2년 간 중단되어 철거된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 잡초가 번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위성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녹지는 정릉천 합류부의 도로변 녹지뿐이었다. 현재 동서 방향의 녹지축을 보강하여 남산과 북쪽의 종묘, 비원, 북한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시 구조 변경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둘째, 청계천이라는 새로운 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제는 맑은 물과 선형 녹



지를 갖는 양호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유통, 서비스 기능이 집결하게 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청계천에 인접한 2차선 차도를 보도로 바꾸고, 그 배후에 차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청계천 복원 공사 비용에 비해서 천문학적인 토지 수용비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청계천은 상류로 갈수록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깊이가 깊고, 콘크리트 등의 인공 구조물이 수면과 녹지를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에 인접한 토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전면에 가능한 넓은 공개 공간(public open space)을 확보하여 도시 녹지를 보강하여 시민의 친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 및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문화 복원 사업의 지속 추진

셋째, 현재의 청계천은 하천 복원의 시작에 불과하여 역사와 문화의 복원 사업을 지속하여야 한다. 진정한 하천 복원은 과거의 하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주장이다. 반대로 도심 하천의 특성을 강조하여 과도한 인공물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 복원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수변 식생

멀리 수표교가 보이는 청계천의 옛 모습. 일부에서는 과거의 유적, 가로망, 하천 구조물 등을 되살리지 않는 한 청계천 복원은 엉터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심의 개발 밀도 및 우수 유출량이 전근대적 도시와 너무나 다른 상태에서 과거의 석축 제방이나 교량을 복원할 수는 없다. 청계천변을 민속촌으로 만들지 않는 한 조선시대의 가로와 건물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살아야 할 장소에 많은 설치비와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는 바닥 분수 및 첨단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리학적 안전성 필요 때문에 콘크리트 등의 인공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물을 이용하여 피복 혹은 은폐하여 자연적 경관 요소를 강조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과거의 유적, 가로망, 하천 구조물을 다시 살리지 않는 한 청계천 복원은 엉터리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도심의 개발 밀도 및 우수 유출량이 전근대적 도시와 너무나 다른 상태에서 과거의 석축 제방과 교량을 복원할 수 없다. 청계천변에 민속촌을 만들지 않는 한 조선시대의 가로와 건물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향후의 청계천 복원 후속 사업은 청계천과 인접한 도심부에 물과 녹음을 이용한 자연이 차지하는 공간을 확충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이 요구하는 생활 환경의 질을 갖도록 도심부를 재

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박종화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회장